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7월 11일(화)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 7월 11일(화) 17시: 운영위원회의
- 7월 12일(금) 16시: 기자촌 마을지 수정본 편집회의

■ 연구원 소식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2023년 여름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천동관 님, 이문현 님, 박래정 님, 임항택 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천동관 님은 문화강좌 청강 후 회원으로 가입하신 전주 시민이십니다. 이문현 님은 이재정 회원과 함께 전주국립박물관에 재직하셨던 분으로 현재 전주에 안착해 생활하고 계십니다. 박래정 님은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며 지난 2018년 제2차 해외역사탐방 바이칼 호수를 연구원과 함께 누비던 분으로 박애스더 님의 추천으로 연구원에 새 식구가 되셨습니다. 임항택 님 역시 박애스더 님의 추천으로 연구원의 새 식구가 되셨으며 서울에 살고 계시며 앞으로 수도권 회원 모임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는 이미 닳은 삶을 걷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자주, 그리고 오래 뵈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 역사속의 오늘

국군의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다 - 1950. 07. 14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남한군의 전체 작전통제권을 넘겨주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쟁 중 미국이 변심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미군은 한국군의 작전권을 묵인했고 한국군은 어느 정도 독자 지휘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문율은 1.4 후퇴 때 국군이 맡은 방어선이 중국 인민군에게 뚫리게 되는 우리 군 최악의 수치인 현리 전투로 인하여 깨지게 되었다.

국군 3군단과 예하 3개 사단이 증발하는 바람에 많은 미군이 고립되었다. 1951년 현리 전투에서 중국군을 맞이한 것은 한국군 3군단이었다. 그런데 중국군의 선봉 1개 중대가 야간 12시간 동안 강원도의 험한 산길 30킬로미터를 주파하여 후방의 오마치 고개를 점령하였다. 그 순간 퇴로가 막힌 것으로 판단한 국군 3군단은 완벽하게 무너졌다.

미 8군 사령관 밴플리트가 당시 한국군 3 군단장이었던 유재흥에게 "당신의 군단은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유재흥은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대답을 했다.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후 밴플리트는 한국군 1군단을 제외한 모든 군단을 해체시켜 미군에 배속시키고 1군단 또한 육군본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통제할 것을 결정한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독자적 영역마저도 스스로의 오류와 실수로 인해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73년 뒤인 오늘까지도 대한민국 군의 전시작전권은 미국의 소유다. 1995년에 겨우 평시작전권만을 돌려받았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군은 평상시에만 대통령 마음대로 통솔할 수 있는 군대이다. 전시작전권 반환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전시작전권이 있기에 우리와 미국이 공동으로 작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전시작전권반환은 주한미군철수로 가기 위한 적화세력의 준동이라고 이야기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과 미국은 2012년 4월 12일 자 전환을 약속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천안함 사건이 주된 이유였다) 2014년 10월 23일 박근혜 정부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열세에 놓여있는 한국군의 현실을 볼 때 연기가 필연적이라고 밝히며 2020년 이후로 연기하였고,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에도 해군과 공군 작전통제권은 미군이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시와 평시를 불문하고 자국 군대의 작전권은 각 국가가 갖는다. 연합군에서 작전통제권을 어느 쪽이 갖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크게 일본형과 나토형 두 가지 모델로 나뉜다. 그러나 자국 주력부대의 전시작전권을 상시적으로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한 사례는 한국뿐이다.

오늘날 한국은 국방비가 세계 10위 수준에 이르며, 북한의 34배를 넘어서는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 열세로 인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유예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속살에 의혹을 갖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